

다 이루신 주의 십자가

시편 22:1-19, 마가복음 15:33-39

최정웅 목사님

마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나와 있다. 유대인들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고발해서 재판했다. 명절에 죄인을 놓아주는 풍습이 있어서 빌라도가 제안을 했다. “강도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여론을 물어본 것이다. 아무리 심문해도 죄가 없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악이 얼마나 번식력이 강한지, 백성들이 한통속이 된 것이다. “바라바를 놓아주시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자기들을 살리러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했다. 지금도 똑같다. 지금 현장은 죄로 인한 저주, 사단의 권세, 지옥의 배정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 창세기 3장, 자기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한다. 창세기 6장, 육신적으로 모든 것을 보니까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다. 창세기 11장, 성공만 하면 될 줄 알고 예루살렘에서 성공한 엘리트가 되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짓을 하게 되었다. 모든 수고와 노력을 최고의 악에 쓰는 인생이 되었다. 당시 형벌 중 가장 참혹한 것이 십자가형이었다. 반란을 일으킨 자를 처형하는 방식이다. 그 형벌을 받으신 것이다. 신명기 21장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받은 자라고 했다. 자기 구주를 저주받은 자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는가. 인간이 하나님, 나의 구주,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것이 십자가다.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내가 얼마나 악한가? 하나님을 죽일 만큼 악한 것이다. 가장 무서운 죄가 존속살해다. 자식, 부모를 죽이는 죄다. 그런데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못박아 죽인 형틀이 십자가인 것이다. 또 하나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죄인, 허물과 죄로 죽은 이 악한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내 생명을 살려주셨다는 것이다. 나를 용서하시고 살리시고 자녀 삼으시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신 그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사람들은 강도를 살리고 자기 구주를 죽였다. 이게 우리의 원래 모습이다. 성경은 그것을 고발하고 있다. 하나님 떠나 죄에 빠진 불신자의 상태를 숙지하라. 그리고 그 속에 있었던 나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성경의 의도다. 그러면 그때,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게 될 것이다. 오늘 두 가지로 복음을 묵상하면서, 다 이루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기를 바란다.

1. 갈보리산 사건의 의미를 붙잡으라.

갈보리산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하나님 떠나고 죄에 빠져서 마귀에게 지배당했던 모든 문제를 완전히, 깨끗이, 확실히 처리하신 것이다.

(1) 그래서 갈보리산 사건은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해 모든 형벌의 고통을 다 당하신 사건이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게 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보다 더 큰 고통은 없다. 예수님이 그 고통을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당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나’라고 외치셨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제

사장으로서, 인류의 죄를 깨끗이, 완전히, 영원히 청산하셨다.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것만큼 불행한 것은 없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형벌을 하나하나 대신 당하셨다. 그래서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53:5-6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가 당해야 할 고통을 대신해서 당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주간 되시기 바란다.

(2) 갈보리산 사건은 참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3:15를 이루신 사건이었다. 십자가에서 그 극심한 고통을 당하신 주님은, 요한복음 19:30의 기록대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말씀하신 후에 숨을 거두셨다. 이 죽음은 창세기 3:15의 말씀이 성취되는 죽음이었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마귀가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물고 십자가의 고통을 주었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 고통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마귀의 머리통을 깨뜨리신 것이다. 그래서 갈보리산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는 것이다.

(3) 갈보리산 사건은 선지자의 사역을 완성하신 사건이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성전에 있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했다.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서 온 백성을 위하여 속죄의 예배를 드리는 곳이 지성소였다. 여기를 막아놓고 있었던 휘장이 찢어졌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 열린 것이 바로 이 시간인 것이다. 마태복음 27:51, 누가복음 23:45에도 같이 기록된 사건이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었는데, 휘장을 찢으심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히브리서 10:19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했다.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당신의 육체를 찢어서 그 휘장을 찢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만나고 자녀되는 축복을 받게 하신 것이다. 예베소서 2:14에는, 자기 육체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완성하셨다.

이게 바로 갈보리산의 의미다. 그 고통과 죽음은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죄와 사단과 지옥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 버리시고,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신 사건이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30의 말씀대로, 다 이루신 것이다.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말인가? 자신에게 주어진 인류 구원의 천명, 그리스도의 소명, 십자가라는 사명을 다 이루셨다는 것이다. 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자.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는 한 주간 살기를 바란다.

2. 복음으로 인생의 결론을 내려라.

이 갈보리산 복음을 붙잡은 모든 참사랑 가족들은, 복음으로 인생의 결론을 내고 그 축복을 누리자.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다.

(1)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모든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참 제사장으로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해서 고통 당하셔서 죄의 형벌을 사해 주

했다. 참 왕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시고 우리를 그 손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막힌 담을 자기 몸으로 헐어 버리셨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도 끝났다. 더 이상 불면증, 우울증, 조울증에 시달릴 필요가 없다. 어떤 책에는 보니까, 예수님께 전가하는 기도를 하라고 했다. 여러분도 예수님께 맡겨라. 가난도 무능도 맡겨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끝났다. 이 갈보리산 복음을 붙잡고 결론을 내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그분을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끝나버린 것이다. 주님께로 갔다. 그리고 주님이 끝내 버리셨다. “원수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이다.” 문제가 아닌 것이다. 문제가 없는 것이다. 시간마다 복음을 선포하시기 바란다. 예수님이 이미 짊어지셨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이다.” 요한복음 19:30을 계속 선포하라. 주님이 다 이루셨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완성하시고 성취하셨다.

(2) 이 결론을 내고 나면, 우리의 삶에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만사 오케이다. 아이는 엄마 품에 있으면 만사 오케이다. 울기만 하면 된다. 엄마는 금방 안다. 하나님은 엄마를 능가한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 모든 심령을 아신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기도만 하면 된다. 하나님 나라 누리시기를 축복한다. 성령으로 내주해 계신다. 인도하신다. 역사하신다. 성령만 의지하면 된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주의 사자가 동원되고, 하늘 배경이 임하게 되는 것이다. 세계 살릴 제자를 만나도록 응답도 해 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감람산의 증거다. 여러분은 이미 그런 체험을 많이 가지고 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높은 산도 거친 들도 상관없다. 6.25 때다. 피난민이 물밑처럼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겨울날 날이 추운데 들어갈 곳이 없다. 그래서 처마 밑에서 몸을 피한 아이 엄마가, 그런데 아이를 업고 찬송을 부른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소리를 방구석에 처박혀서 들은 청년이 있었다. 그 찬송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가장 슬프고 처절한 전쟁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노래하더라는 것이다. 그게 가슴에 살갗이 박혔다고 한다. 결국 그 고백을 통해 자기가 목사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다. 사회는 혼란하고 갈등이 많으나, 그리스도 모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사시기를 축복한다.

(3) 이 증거를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고 있으면, 반드시 시간표를 따라서 현장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 체험하시기를 축복한다. 그래야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게 없으면 재미없는 인생일 뿐이다. 이렇게 되면, 전도의 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이 변화되는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게 성경이다. 이것이 마가다락방의 증거였다. 우리 참사랑교회가 마가다락방이 되고, 우리의 삶이 사도행전 2장의 삶이 되기를 축복한다. 복음으로 인생의 결론을 내시기를 축복한다. “여자여, 믿기만 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찬양한 내용 아닌가? “내가 다 이루어 놓았다. 믿기만 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거라.” 이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결론을 말씀드리겠다. 이 갈보리산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가 이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주님 바라보면서, 내가 질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는 헌신의 결단을 내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겠다. 그것이 누림이다. 예수님은 갈보리산에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절대 목표를 이루셨다. 인류 구원을 위해 속죄의 절대 사명을 감당하셨다. 속죄를 위해서는 죄 없으신 주님이 죄인의 고통을 일일이 감당하셔야 했다. 이것이 바로 절대 헌신이다. 그는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했다. 이것으로 헌신하신 것인데, 세상 모든 임금, 모든 학자, 모든 장군, 모든 인텔리가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 절대 헌신의 열매인 것이다.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의 모델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 주셨다. 그런 절대 헌신의 사람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갈보리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짊어져야 할 나의 십자가를 발견해야 되겠다. “나는 십자가 안 저요, 영광만 누릴래요.” 그것은 아니다. 내 뿔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것을 발견하라. 이것을 가정에서, 가문에서, 교회에서, 회사에서, 사회에서, 나라에서 발견해야 한다. 주님처럼 생각해 보라. 그래야 사회가 산다. 세상을 살릴 수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보리산으로 올라갈 때 여러 번 넘어지셨다. 한 숨도 못 주무시고 기도하셨다. 재판을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수없는 고난을 당했다. 기진맥진해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데, 계속 쓰러지는 것이다. 로마 군인이 그것을 보고 옆에 있던 사람을 불러서 억지로 십자가를 메게 했다. 그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 이 사람이 감히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며 도울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것이다. 비록 억지로 졌지만, 그와 그 아들, 그 아내가 이를 계기로 믿고 나중에 믿음의 명문가문이 되었다. 주님의 십자가를 잠깐 대신 졌는데 어떤 응답이 왔는가? 마가복음 15:21에, 이 사람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했는데, 그 이름이 로마서 16장에 기록되어 있다.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라고까지 했다. 복음의 명문가문이 되어서 세계를 살리는 대 전도자를 위해 돌보고 어머니처럼 돌보는 사람이 되었다. 그 이름이 2천년 동안 남도록 성경에 기록된 것이다.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이다. 우리 교회가 있는 한 여러분의 이름이 기억되기를 바란다. 그게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다.

쉬운 길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다. 사랑하는 참사랑 가족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란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 결론을 내리시기 바란다. 그리고 복음을 위한 헌신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 나의 십자가를 찾아내고, 조금만 그 십자가를 지는 헌신의 결단을 하게 되면, 교회가 살아난다. 후대를 살릴 수 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교회를 무너뜨리지 마라. 후대가 나를 보고 따라하도록, 잘못된 관습, 관행, 신앙을 심으면 안 된다. 불평, 불만은 땅에 묻어라. 내가 질 십자가를 조금만 지고 헌신하면, 이름도 빛도 없을지라도 조금만 하면, 하나님은 풍성하고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의 헌신으로, 교회, 가정, 교회, 교계, 민족, 세계가 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종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참사랑 가족들이, 다 이루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 때문에 당하신 그 고난 속에서 나를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 찾아 스스로 지며, 그 열매를 먹는 행복한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